



## 2024학년도 소변검사 실시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,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**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**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없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따라서 결석하지 않고 이번 소변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.

1. 검사 일시 : **2024. 5. 20. (월) 오전 중 실시**
2. 검사 대상 : **중학교, 고등학교 2, 3학년 학생**
3. 검사 비용 : 무료 (학교에서 지급)
4. 검사 기관 : 학교보건협회 전북지부에서 병리검사요원이 출장 방문

### ◆ 소변검사 시 검사항목

- **단백** : 신장질환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법입니다.
- **잠혈** : 혈뇨는 전신성의 출혈, 신장종양, 비뇨기계의 종양, 염증, 이물 등을 조기 진단 할 수 있습니다.
- **요당** : 소아당뇨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
- **pH** : 요로감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### ◆ 소변검사의 중요성

☞ **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.**

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. 신장은 노폐물 제거,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 형성,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.

☞ **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.**

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신쇠약, 빈혈, 다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를 찾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
☞ **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**

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치료 외에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,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.

## ★★검사 시 주의사항★★

### 1. 채뇨하기 전날 잠자기 전 소변을 보세요!

- ☞ 자기 전 배뇨를 하지 않는 경우 기립성 단백뇨(체위성 단백뇨)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☞ 기립성 단백뇨(체위성 단백뇨)는 정상인에서 오래 서 있거나 운동 후, 목욕 후 또는 발열 시 나올 수 있습니다.

### 2. 검사 전일 지나친 채식이나 비타민C 섭취를 제한하세요!

- ☞ 신선한 정상인의 소변은 약산성이거나 중성이나 지나친 채식과 비타민C 섭취로 인해 소변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

### 3. 생리중인 여학생은 검사요원에게 알려주세요!

- ☞ 잠혈 반응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### 4. 검사 전 영양제 및 약물 복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검사요원에게 알려주세요!

2024. 5. 16.

산 서 중 고 등 학 교 장